



외대학보

2 글로벌배움터 정견토론회를 가다 3 새 이중전공제도 논란 5 우리학교 연계전공 심층분석 8 아동자폐치료의 선구자, 행동분석가 한상민



글로벌 총학생회 선거 정견토론회

지난 18일 글로벌배움터 교양관 1층 밀라노에서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언론사, 학생들이 정견토론회를 하는 모습이다. 이 자리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모든 학생들의 자신들의 의견을 잘 표명해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길 바란다.

▷뒷면에 계속
이진형 기자 89mateo@hufs.ac.kr

‘법학도들의 어머니’ 명에 법학박사로



조명덕 총장

▲김인철 총장과 강효석 대학원장이 조명덕 여사에게 박사학위 후드를 매어주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배움터 국제관 애경홀에서 법학과 명예등문 이었던 조명덕 여사가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는 조명덕 여사에게 장학금을 수여받았던 법학대학 동문들과 그 외 법학대학 동문들은 물론 김인철 총장, 강효석 대학원장, 이훈동 법학전문대학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학생 일동, 양 배움터 처장단 및 교무위원, 권순한 총동문회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명덕 여사는 억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법조인들이 많이 양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1993년부터 지금까지 법학대학 장학금 및 발전기금, 우리 학교 발전기금 등을 통틀어 약 42억 여원을 기부했다. 특히 어려운 사정의 법학도들에게 오랜 기간 장학금을 지원하며 조 여사는 ‘법학도의 어머니’로 불려왔다. 이에 우리학교는 조명덕 여사를 법학대학 명예등문으로 추대한 데 이어 2007년 신축한 법학관에 ‘조명덕홀’을 개관하고 부조 홍상을 설치해 조 여사의 뜻을 기렸던 바 있다. 조 여사는 6·25 전쟁 당시 피난 와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역경을 딛고 성공을 이룬 뒤 우리학교 외에도 다양한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다.

김인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사님은 인재를 아끼는 마음과 대학, 사회에 대한 기여정신을 통해 그 이상의 값진 교훈을 주셨다”며 “그 어떤 다른 명예박사 학위보다도 값지고 영광된 학위”라고 조 여사의 인재 사랑에 대한 감사를 밝혔다. 한편 조명덕 여사에게 장학금을 지원받았던 동문들이 조 여사에게 꽃다발을 전하는 한편, 장학금을 받았던 만큼 후배들을 위해 돌려주겠다고 뜻을 모아 현재 장학금 기부를 위해 기금을 조성 중임을 밝혀 아름다운 자리의 뜻을 더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비둘기, 부엉이, 미네르바 여신 우리학교 상징물은 무엇?

우리학교를 대표할 새로운 캐릭터 상징이 만들어진다. 이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우리학교의 UI(University Identity) 정립과 통합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돼왔던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상징 후보로는 비둘기, 부엉이, 미네르바 여신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우리학교 이미지에 맞는 후보를 추천받기도 한다. 기간은 24일부터 30일까지며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첫 번째 상징 후보인 비둘기는 우리학교의 건학이념 ‘진리, 평화, 창조’ 중 하나인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세계와 어울리고 화합하는 외대인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후보인 부엉이는 로마 신화 중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신조(神鳥)로 묘사되는 지혜의 상징이다. 우리학교에 있

던 미네르바 동산의 새로써 화자되기도 했다. 이는 냉철한 이성으로 도전하는 외대인의 저력을 나타낸다. 마지막 후보인 미네르바 여신은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는 지혜와 기술을 주관하는 신이다. 앞서 언급한 미네르바 동산의 이름도 이 여신에서 따왔다. 본능과 자연보다는 의식과 지식을 주도하는 외대인을 표현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12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10명을 추첨해 개교 60주년 기념 와인 1병을 제공한다. 황순규 홍보실 팀장은 “우리학교의 상징을 뽑는 만큼 최대한 많은 외대 구성원들이 투표에 참여 해줬으면 한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2015학년도 신설 연계전공 안내

연계전공명		캠퍼스	특징	모집인원	신청 대상	
융복합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서울/글로벌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를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공대의 전공과목과 별도로 독립적인 과정으로 운영함. 본 연계전공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문학 소양을 갖춘 융복합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40명 (각 캠퍼스)	2007학번 이후 학생 중 2015년도 1학기에 2학년 진급 예정자	
국가리더연계전공		서울/글로벌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공무원시험, 대기업, 대기업)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법학 관련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함.	50명 (각 캠퍼스)		
광역특화전공	마그레브 전공트랙	글로벌	• 2014년 교육부 CK-사업 대학특성화사업 국제화부문에 선정된 「Locality기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15학년도부터 신설 운영되는 연계전공으로, 4개의 세부트랙으로 구성됨. • 기존의 국가 및 단일 언어권 중심의 국지적 이해 차원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적·지리적·문명사적 차원의 초국적 단위를 지칭하는 ‘로컬리티(locality)’ 개념을 도입 적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과정임. • 제1전공어 및 해당국가에 대한 기본이해를 제2전공어 학습 및 광역연구로 확장·심화함으로써, 다언어적·다문화적 혼종 양상을 띠는 오늘날의 글로벌 지형도 이해에 필수적인 정치학-경제학-인문사회학-문화학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지향함. • 다중어 역량 및 해당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를 갖춘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사업단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사업단 참여 5개학과 재학생	프랑스학과
	유라시아 전공트랙					러시아학과 및 중앙아시아학과
	인도-남아시아 전공트랙					인도학과
	브라질-중남미 전공트랙					브라질학과

※연계전공 신청

- 대 상 : 학번 이후 학생 중 2015년도 1학기에 2학년 진급 예정자
- 기 간 : 2014. 11. 24(월) 09:00 ~ 12. 02(화) 17:00 (신청기간 이후 추가 신청/변경 절대 불가)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전공/교직관리→이중전공 신청(희망하는 1개의 학과 신청)

학내 브리핑

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 놓치지 마세요

이번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겨울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겨울 계절학기 수업은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료는 1학점 당 79000원이다. 계절학기 수업을 통해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은 2014년 2학기 성적으로 인정된다. 세부사항은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겨울 계절학기 수강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중전공 신청기간 연장 확인하세요

2015학년도 1학기 이중전공 신청 기간이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됐다. 이중전공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배정 결과는 겨울 계절학기 성적을 제외한 1월 5일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1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기간 내에 이중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1월 중순에 반드시 부전공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2015학년도 전과 시행 일정 확인하세요

다음 해 1월 5일부터 7일까지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전과 원서접수를 받는다. 전과자격은 2학년 진급 대상자 중 3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 3.50 이상인 재학생에게 부여된다. 단, △복수학과에 이중 지원 불가 △3개 학기 이상 재적생 신청 불가 △휴학생 △비사범계열 학생이 사범대학으로 전과 불가 △LD전공으로 전과 불가 제한이 있다. 선발기준은 평점평균, 필기시험, 면접 등 해당 학과(전공)의 기준에 따르므로 희망 학과(부)에 문의해야 한다. 학과 전형은 1월 13일부터 19일까지며 시간과 장소는 지원학과(부)에서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허가자 발표예정일은 1월 28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길 바란다.

FBS 토크콘서트 유병재의
극한인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3일 오후 6시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2014 FBS 토크콘서트 유병재의 극한인생'이 개최된다. 행사는 연사 강연, 사전질문 토크쇼, 유병재의 노래한마당으로 구성되며, 사전질문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 사전질문 대상은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에 한하고, 방송국 계정의 페이스북 메시지나 fbs1961@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1월 26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정견토론회 열리다

공약 검증의 중요한 절차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글로벌배움터 교양관 1층 밀라노에서 총학생회 선거를 위한 후보들의 정견토론회가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와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언론 4사(외대학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Argus,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외대교육방송국 글로벌 FBS)와 학생들이 자리했다. 이번 정견토론회는 조국인(국제지역·프랑스 09) 중선관위장의 진행으로 △입후보자 기초발언 △학내 언론사 질의 및 입후보자 답변 △학생 자유 질의 및 입후보자 답변 △입후보자 마무리 연설 순서로 이뤄졌다.

1번 후보 - 메아리

2번 후보 - We Make Pride(이하 위메프)

〈공통질의〉

FBS : 두 후보 모두 동상철거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미 총장이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알려 달라.

메아리 : 우리 선본에서는 동상 철거를 위해 했던 부글부글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상 설립과 관련해 학생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학생의 동의 절차 없이 동상을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에 대해 학교 측을 강력히 규탄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해 학생들의 권리 존중을 요구할 것이다.

위메프 : 총장이 고(故) 김홍배 박사의 친일 행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를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을 총장에게 요구하겠다. 동상은 재단의 기금으로 만든 것이기에 물리적 철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동상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만약 당선이 되면 영문과 기타 외국어로 된 친일행적 알람판을 세울 예정이다.

외대학보 :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약과 구체적 방향을 제시 해 달라.

메아리 : 우선 공간조정위원회를 열어 남는 공간을 조정하고, 남학생 휴게실을 만들 것이다. 또한 양배움터 통합이 이뤄진 만큼 학생이 분교 표지를 발견하면 이를 고발할 수 있는 학생 고발제를 도입하고, 총학생회 내에 관련 행정 처리팀을 만들 것이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고 외부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바뀔 것이라 본다.

위메프 : 일단 빈 공간 활용을 실천하겠다. 먼저 정문 옆에 위치한 영어마을 부지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백년관의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을 학회 연습

실, 휴게실, 스터디, 세미나실로 활용할 방침이다. 교지 : 두 후보는 자신의 정책들에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나. 또 그러한 이유를 말해 달라. 메아리 : 현재 우리 선본은 3,6,9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3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요구해야 하는 사항, 6은 시설 관련 공약, 9는 학업 관련 공약이다. 2013년 34대 총학생회인 채움의 공약 이행도가 약 50% 정도였다. 물론 우리도 100% 이행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을 위해 모든 공약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뒤이어 다음 총학생회에서도 공약들이 다 이행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

위메프 : 주요 공약은 총 4가지다. 첫 번째는 분교 명칭 문제다. 명칭부터 확실하게 해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 두 번째는 커리큘럼 간의 이원화다. 서울배움터는 어학·문학 중심으로, 글로벌배움터는 통번역학·지역학 중심으로 특성화할 것이다. 세 번째는 복지다. 광역 버스 무료 탑승을 실천하겠다. 네 번째는 빈 공간 활용이다. 전적으로 학생 중심인,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조정위원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The Argus : 등록금과 관련한 학교와의 협상 방안을 알려 달라.

메아리 : 등록금은 동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비와 등록금의 사용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교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위메프 : 우리 선본 또한 등록금은 동결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비 사용 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해 학생 중심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개별질의〉

FBS : 메아리가 제시한 공약 중 재수강과 절대평가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을 알려 달라.

메아리 : 재수강, 절대평가 기준을 정할 때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외국어 특

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많은 수업이 절대평가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당선이 된다면 재수강과 절대평가 기준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고민할 것이다.

교지 : 선본 소속 한 학생이 정치적 성향을 따는 프레이저 논란이 돼 제명됐다. 그런데 이 속에는 동상 철거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출마한 후보는 이 운동의 대표로 있었다. 그렇다면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위메프 : 결론만 말하면 어떠한 특정 정당과도 관련이 없으며 가입한 적도 없다. 그 학생과는 개인적 친분은 있었지만 그 프레이저에 관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 선본 논의 결과 문제가 된 학생을 선본에서 제명시켰으며 앞으로도 함께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학생 질의〉

정중호(통번역·스페인 11) : 여러 공약들이 지난 총학생회와 다른 점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메아리 : 우리 배움터가 여전히 분교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최지민(동유럽·우크라이나 10) : 작년에 이미 출마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 당시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한 이번에 출마하면서 개선한 점은 무엇인가.

위메프 : 당시 48.16%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130명이 모자랐다. 학생들이 조금만 더 학교 행정에 관심을 가져줬다면 선거가 무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당시 해당 선본에 특정 정당의 색을 지닌 학생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어떠한 정치적 색깔도 띠고 싶지 않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새로운 외대학보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외대학보사 90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4년 11월 11일(화)~11월 26일(수)

모집대상 :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지원서 마감일 : 11월 26일(수)

필기시험 및 면접일 : 11월 29일(토)

합격자 발표일 : 11월 30일(일)

지원서 수령 및 제출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문의사항 연락처 : 임수진 편집장(010-4257-9732)

이공계, 친근함을 입다!

글로벌배움터 제8회 이공계 학술제 개최



▲한 학생이 그린사이언스 부스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압전소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글로벌배움터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제8회 이공계 학술제가 열렸다. 어문계열이 중심인 우리학교에서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사다. 이번 학술제는 새로 지어진 백년관에서 개최돼 학생들이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학술제에는 지난 해보다 2팀 많은 10팀이 학술 경진 대회에 참여했다. △안개 포집기를 이용하여 안개를 연구한 AQL △스마트폰으로 홈 케어 시스템을 구축한 지켜줄게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을 개발한 EXO △홈cctv의 단점을 보완한 PNP △대체 에너지를 소개한 주군의태양 △새로운 에너지원인 압전소자를 소개한 GREEN SCIENCE △스마트폰 화면 회전 원리인 '자이로 스코프 효과'를 소개한 PHYSICS OF SPIN △스마트폰 앱으로 ic칩과 무선을 통해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하는 인식기술을 선보인 NFC(New Future of Communication Team) △저렴한 가격으로 고퀄리티 게임을 만든 날려줄게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관광객을 위한 앱을 만든 Gwangchu 등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특히 Gwangchu 팀은 이공계 학생들로만 구성된 다른 팀들과 달리 국제지역대학 국제스포츠레저

학부 학생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색다른 참여의 장이 마련됐다. '피파온라인 3'와 '리그 오브 레전드' 두 종목으로 구성된 E-sports 대회가 열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젠가 게임, 네일아트 무료체험, 이동 취업 상담센터, 캐리커처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돼 학술제가 더욱 다채로웠다. 이공계 학술제는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과 함께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알차고 다양한 학술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부스에서 유심히 설명을 듣던 문주현(자연·화학 14) 양은 “학과에서 배운 이론도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팀원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좋았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제에 GREEN SCIENCE 팀으로 참여한 이석희(자연·전자물리 11) 군은 “학술제를 준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 힘든 점도 많았다”며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우리 부스에서 실험하고 질문하며 흥미를 갖는 모습을 보고 매우 보람이 컸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단과대학 투표일정 확인하세요 서울배움터 9개 단과대학 연이어 선거무산

선거철을 맞아 양 배움터 모든 단과대학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위해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이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배움터는 동양어대학, LD학부, 영어대학을 제외한 서양어대학, 사범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국제학부, 상경대학, 글로벌경영대학에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쏠리지 선거가 무산됐다. 다만 글로벌경영대학은 11월 선거가 무산될 경우 현 학생회장이 3월 재선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는 글로벌경영대학 학생회칙에 따라 유경원(경영·경영 12) 글로벌경영대학 학생회장이 3월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서울배움터에서 대다수의 단과대학이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도 못했다는 점에 대해 장효민(동양어·터키어 11) 군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요즘 대학생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스펙과 학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 때문인 것 같다”며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라고 학생 사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선거를 치르게 될 동양어대학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예비일 1일 연장이 가능하다. 또 LD학부는 12월 2~3일 2일 동안, 영어대학은 12월 1~2일 2일 동안 투표가 진행되고, 영어대학은 예비일로 2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글로벌배움터는 인문대학, 경상대학, 통번역대학, 국제지역대학, 동유럽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등 모든 단과대학에서 입후보를 마쳐 선거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배움터 단과대학들의 투표일정은 총학생회 선거 투표 기간과 동일하게 11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인문대학과 경상대학은 인문경상학관에서, 통번역대학과 국제지역대학, 동유럽대학은 어문학관에서,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관에서, 공대는 공학관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11월의 악몽? 서울배움터 총학 선거 또 무산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 제 49대 총학생회장단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지난 10월 28일 일정 공고 후 11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추천 및 입후보를 거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후보 마감 시한까지 후보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국 선거 무산을 공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써 서울배움터는 2011년에 이어 4년 연속 11월 선거가 무산됐다. 김범(국제 11)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계속되는 11월 선거 무산에 대해 “학생 대표자로서 얻을 수 있는 보람과 경험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었다”며 “방학 중 있는 전체 일꾼수련회에 학생회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학생 대표자들을 양성해나갈 수 있도록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 총학생회장단은 지난 학기 재선거를 통해 당선돼 4월 2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학생회칙에 따라

12월 31일 임기를 마치게 된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부터 공석이 되는 총학생회를 채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들어설 예정이다. 11월 선거 무산 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예정자 전원으로 구성되기에 각 단과대학의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본격적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12월 5일 1차 회의에서 후보 추천 후 12월 8일 2차 회의에서 위원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다만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돼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설 경우, 단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위원장단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으로는 김범 총학생회장이 선출됐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우리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새 이중전공 제도에 학생들 반발 커

새롭게 개편된 이중전공 제도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크게 △2·3지망 제도 폐지에 따른 선택권 제한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나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2·3지망 제도 폐지다. 이전까지는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어 1지망에 떨어지더라도 2·3지망 학과에서 선발되면 이중전공 이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학과별로 기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 상의 문제로 하나의 학과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3지망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은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학교는 졸업하기 위해서 이중전공이나 부전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한 번 이중전공에 불합격하면 무조건 부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성민재(국제지역·러시아 14) 양

은 “이중전공과 부전공은 이수 학점부터 시작해 많은 것이 다르다”며 “부전공으로는 이중전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배움터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측은 이중전공에 불합격하더라도 우선 부전공으로 학점을 취득하고 이중전공 변경 기간에 이중전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기간에 각 학과의 정원은 ‘타 학과로 옮겨가거나 학업을 그만두는 등의 이유로 생긴 여석’과 ‘이중전공 신청기간에 미달된 학생의 수’를 더해 결정된다. 또한 변경한 이중전공과 변경 전 부전공이 같은 학과일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이중전공 학점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변경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박예빈(중국·언어문화 14) 양은 “기존에 사람이 몰리는 학과는 변경 기간에도 정원은 적고 신청하는 인원

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기 학과로 이중전공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글로벌배움터 학종지 측은 “기존의 3지망까지 있던 제도에서도 1지망 지원률에 차이가 있어 모든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듣지는 못했다”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의 정원이 정해져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연계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에게는 우선 부전공을 신청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도 소용이 없다. 연계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게 정해져 있어 부전공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현중(국제지역·그블 07) 군은 “부전공에서 다른 연계전공으로 바꾼다면 이전에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그만큼 졸업에 시간을 더 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이에 글로벌배움터 학종지 측은 “여러 학과를 응

합한 연계전공의 특성상 부전공 학점으로 이수하기엔 양이 방대하다”며 “대신에 변경할 연계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교류 교과목에 한해서 변경 후에도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 배움터 학종지는 “각 학과에서 보내준 내용으로 행정처리만 하는 역할”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과 사무실에선 “제도가 바뀐 첫 학기라서 특별한 정보가 없다”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철(국제지역·브라질 14) 군은 “아무리 제도가 새로 생긴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외대인이 만난 세계

공산주의의 흔적들, 루마니아



▲브라쇼브 근교에 있는 펠리슈성의 모습이다.

루마니아의 풍경은 바로 옆 나라 불가리아와는 또 다르다. 히치하이킹으로 국경을 넘어 마주한 첫 고속도로는 포장에 제대로 되지 않아 돌들이 이리저리 튀기는 거친 길이었다. 루마니아는 유럽에서도 소득수준이 거의 최하위권이라 아직은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할 자본이 많지 않다. 그나마 남아있는 공장이나 생산시설 거의 대부분은 외국계 기업이 장악했다. 필자를 부쿠레슈티까지 태워준 루마니아 친구에 따르면 교사 월급이 300유로라고 하니 루마니아의 힘든 삶을 짐작할 수 있다. 워낙 힘든 국가인 만큼 돈에 대한 욕망이 불가리아보다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히치하이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 여행 내내 애를 먹었다.

수도 부쿠레슈티에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홍물인 인민궁전이 있다. 대통령을 4번이나 한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고(故) 김일성 주석의 궁을 보고 감명 받아 지은 건물이다. 2km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공산주의의 흔적이지만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인다.

불가리아가 중세의 중소도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면 루마니아는 공산주의 정권 당시 많은 건물들이 성냥갑 같은 건물들로 다시 지어져 매우 삭막했다. 많은 카톨릭 교회들은 인민궁전에서 보이지 않도록 큰 사각형 건물들 사이로 가려졌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현재 남아있는 몇몇 유서 깊은 건물은 신념 있는 신부와 수녀들에 의해 통째로 옮겨져 다시 지어진 것이다.

부쿠레슈티를 떠나 북서쪽으로 들어갈수록 산과 나무들로 생명력을 더해간다. 브라쇼브는 차우세스쿠 몰락 당시의 혁명의 시발점이자 불꽃이었던 시기소아라로 가는 길목이자 드라쿨라로 유명한 도시다. 사실 드라쿨라의 실존인물인 블라드 체페슈는 브라쇼브 출신이 아니다. 부쿠레슈티 남쪽의 드넓은 평야가 그의 활동무대였지만 작가는 소설적인 긴장감과 환상을 더해주기 위해 산과 나무가 울창한 으스스한 브라쇼브를 무대로 삼았다.

이곳은 중세의 교회와 광장, 거리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나라보다 동화 같은 분위기를 맞출 수 있다. 중세 독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건물들 사이 골목에는 노천카페들과 거리의 악사들이 한층 더 분위기를 돋워준다. 부쿠레슈티에서 느낀 삭막함과는 정반대로 브라쇼브에서는 동화적인 촉촉함이 충만했다.

나참술(상경·경제 09)



지구촌을 읽다-⑬

한하은
미네르바 교양대학
중동 사회와 문화 강의

2011년 2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이동은 2014년 11월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에서 밝힌 등록된 시리아 난민은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310만4216명이며 시리아 내부의 난민은 6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난민 규모는 UNHCR이 설립된 지 64년 만에 단일 국가에서 발생한 난민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영국 가디언(Guardian)지는 전했다. 시리아 국경을 넘어 외부로 나온 난민들은 국경에 접한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에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와 유럽의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에 머물고 있다. 그 수는 레바논 113만2601명, 터키 106만5902명, 요르단 61만8508명, 이라크 22만3923명, 이집트 14만289명(UNHCR, 2014년 11월 1일 기준)이다. 등록을 기다리는 각국의 시리아 난민의 수를 더하면 그 수가 더 많아진다.

레바논 같은 경우 이미 자국민의 4분의 1을 넘어선 난민의 수로 더 이상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고, 요르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리아 난민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곳마저도 역시 포화상태다. 2013년 중반까지 하루 평균 2000여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요르단은 최근 그 규모가 수백 명 단위로 줄어들었고,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지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44명의 난민이 요르단 국경을 넘어 이레 단 한명의 난민도 국경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터키는 민족과 종파를 차별하지 않고 시리아에서 터키로 오는 형제들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시리아 난민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터키에서는 20만 명에서 25만 명이 난민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나머지 약 8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제1의 도시 이스탄불, 수도 앙카라, 관광도시 안탈라 그리고 동부의 디야르바크르까지 전국에 거주하면서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급증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수가 150만 명에 육박한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어 실제적인 마

시리아 난민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

찰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터키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방문객'으로 규정했지만 이들의 영구 거주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이민자'로서의 정책을 시급하게 다루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불법으로 터키 국경을 넘으려다 총에 맞아 숨진 시리아 난민 희생자의 수는 최근 9개월 동안 17명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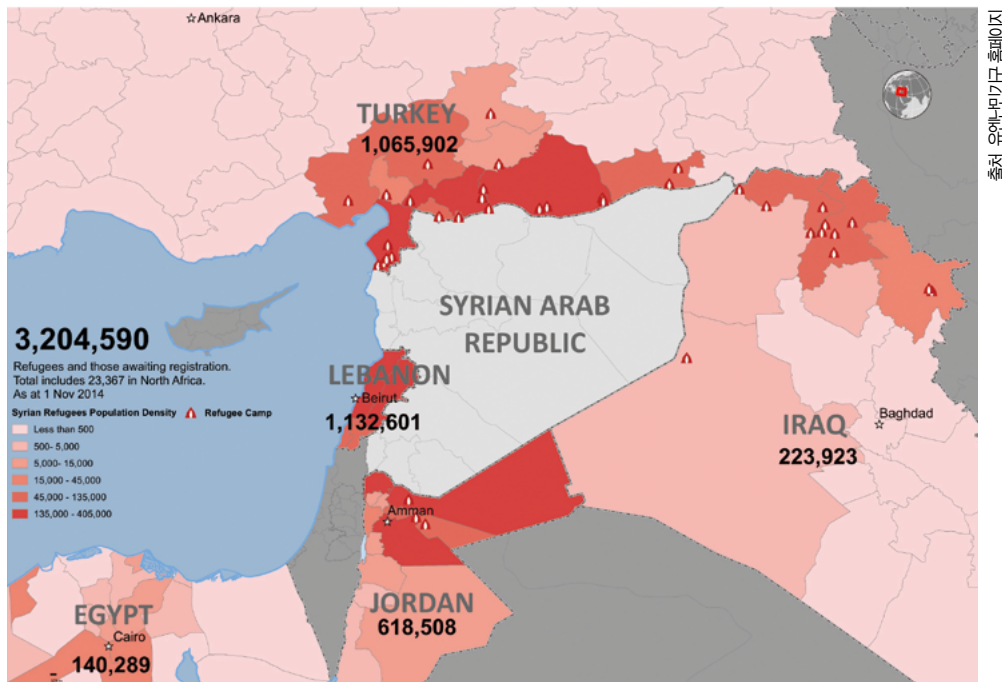
그러나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이하 IS)의 점령지가 넓어지고 반인륜적 행위가 심해지면서 요 근래에 난민들의 수가 급증하고 난민들의 '2차 엑소더스(탈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러한 때에 시리아 북부 코바니의 쿠르드인들(시리아의 쿠르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15%로 추산)은 IS의 위협으로 16일부터 터키 국경으로 몰려들어 국경검문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고 19일 하루 터키정부가 국경을 일시 개방하자 6만 명이 넘는 쿠르드인이 터키로 들어왔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리아 인접 국가들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난민을 받을 수 없다고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유럽연합(이하 EU)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난민을 수용한 인접국가에게 물자지원을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시리아 난민문제의 심각성으로 국제연합(UN) 및 유럽위원회(EC)는 EU에 자국의 국경을 개방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한 국가는 시리아로서 295명(국회입법조사처, 2013년 12월 31일 기준)이었고, UNHCR 한국대표부는 올해 3월부터 시리아 난민 아동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제 시리아 난민문제는 그 인접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된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의 고통과 슬픔은 국제관계의 이해를 뛰어넘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시리아는 내전 이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였지만(UNHCR, 2009년 기준) 지금은 최대 규모의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속단할 수 없는 국제관계 속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인도적 태도와 정책을 취해야 미래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이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들의 고통에 전 세계가 연대의식을 갖고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난민들의 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리아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행위자의 목적이었으면 한다.



▲주변 국가에 거주중인 시리아 난민 수

5분심포

임정혁 기자

가면 속의 나

이번 곡은 평소 다루던 곡들과는 분위기부터 다르다. 이전의 곡들이 쉽게 접하고 가볍게 빠져들 수 있는 느낌의 곡들이었다면, 이번엔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없고 전주에서부터 심오함이 묻어나는 분위기의 곡이다. 오늘 소개할 곡은 헤르쯔야날로그의 '작정을 하고 가면을 쓰다'.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곡은 '가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곡을 부르는 이에게 가면은 '작정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이다. 그가 가면을 작정까지 해가며 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 본 한 책에 가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인격을 뜻하는 '퍼스널리티(Personality)'의 어원이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페르소나(Persona)'로 고대 그리스의 가면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퍼스널리티를 번역하면 '가면 쓰는 것'이다. 즉 자신의 본래 모습과 관계없이 얼마나 상황에 맞게 가면을 쓰느냐를 '인격'이라고 봤던 것이다.

이 곡의 화자에게 가면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맨 얼굴을 보기 전에 얼른 감추고 가면을 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선다.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선 '옳은 일'이었고 자

신의 '인격'이 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답답하고 얼굴에 상처가 나도 '웃음 뒤에 숨는' 일상을 반복한다. 이처럼 노랫말은 가면을 쓰는 사람의 서글픔을 이야기한다.

이 곡을 듣고 있으면 거울로 맨얼굴을 보는 것 같다. 누구나 가끔은 웃는 것이 정말 웃는 것이 아닐 때가 있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는 와중에 스스로를 속여 그 가면이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가면이 꼭 자기 얼굴인 것 마냥 오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맨얼굴을 가려야 하는 아픔을 이야기하며 가면 속 상처 난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게 한다.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속은 분명히 상처투성이일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렇다면 이 노래를 통해 가면 속 자신을 대면하기 바란다. 내용은 분명 서글픔의 나열이지만 듣다보면 위로가 될 것이다. 원래 최고의 위로는 신세 한탄이다.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써야 할 가면이지만 이 곡을 듣는 시간만큼은 자기 얼굴을 마주보고 실컷 하소연하길 바란다.

언(言)빌리버블

유다송 기자

라면 찬가

꼬불꼬불 생긴 것도 예쁜 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색깔처럼 화끈하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5분이면 푹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급할 때 한 끼 식사로 그만이다. 게다가 김밥도 한 줄에 2000원인 판국에 라면은 천원을 내면 거스름돈까지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남아있다. 덕분에 바쁘고 돈 없는 필자의 자취방에 썩은 없어도 라면은 있다. 이런 라면이 '고작 라면이나 먹었다'는 말로 업신여겨지기도 한다. '뭐 먹었냐?'고 물었을 때 '라면 먹었다'고 하면 대충 한 끼 때운 느낌에 안쓰러움을 자아내는 것이다. 싸고 조리시간이 짧아 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일까, 건강에 안 좋다는 소문 때문일까? 그냥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은 것일 뿐인데 푸대접을 받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다. 필자라도 라면의 위상을 세워주려 한다.

라면 한 봉지의 열량은 450~600kcal으로 면을 끓는 물에 한번 데치면 칼로리를 300kcal까지 낮출 수 있어 오히려 다이어트 식품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계란, 파 당근 등을 추가 하면 라면 속 부족한 비타민, 무기질 같은 영양분도 손쉽게 보충할 수 있다. 또 라면의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재료인 라면 스프는 '건강 파괴자'인 양 알려져 있지만, 동물 뼈를 장시간 고아 분말로 만든 것이

주원료로, 단백질, 칼슘 등을 섭취할 수 있다. 이 밖에 철분 함유로 빈혈 예방도 된단다. 이러니 영양가가 없다면 라면은 억울하기만 하다. 이뿐인가, 라면은 취향에 따라 고기, 새우, 꽃게, 콩나물 등을 주재료처럼 넣어 요리하기도 좋은 음식이다. 콩나물과 김치를 듬뿍 넣고 얼얼하게 끓인 라면은 술마신 다음날 해장으로도 좋다.

미세한 기호 차이를 배려라도 하는 것처럼, 비슷한 듯 다른 맛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이 있다. 빨간 국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빔면, 짜장라면 같은 국물 없는 라면도 있다. 또 스파게티 맛과 해물맛 라면을 섞어 해물스파게티 맛을 만드는 등의 조리법도 최근 유행처럼 번졌다. 시중의 라면 가짓수보다 더 많은 맛의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니 맛에 질릴 새가 어디 있나.

세상에 완벽한 음식은 없다고 했다. 다른 음식처럼 2% 모자란 라면이 필요 이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듯하다. 간편한 조리법에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맛까지 있는 음식이라니 참으로 고마운 존재가 아닌가. 오히려 팔방미인에 가까운 라면은 생색도 내지 않고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라면 먹는다고 무시하지 마라. 가진 것이 없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다.

연계전공, 누구냐 넌?

본지 977호에서는 우리학교가 현재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을 비롯한 여러 연계전공을 다음 학기부터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계전공은 2004년 처음 등장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설, 운영돼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이중전공에 비해 연계전공의 인지도나 그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기존에 있던 ‘고참’ 연계전공들을 살살이 파헤쳐보고 새로 생길 ‘신참’ 연계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연계전공이란?

연계전공이란 두 개 이상의 학과가 서로 연계해 하나의 새로운 전공을 개설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중전공과 마찬가지로 1학년 2학기에 이수 신청을 해 2학년년부터 이수할 수 있다. 졸업을 위해서는 5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1전공과 함께 졸업조건을 충족할 경우 1전공과 연계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계전공은 반드시 이중전공으로 이수해야 하도록 정해져 있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계전공’ 이외의 연계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현재 우리학교에 개설된 연계전공은 ‘BRICs연계전공’ ‘EU연계전공’ ‘동북아연계전공’ ‘문화콘텐츠학 연계전공’ ‘기록·문화유산관리학 연계전공’ ‘글로벌IT 연계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계전공’ 등 총 7개다.

▲연계전공의 현 상황은?

아래의 <우리학교 고참 연계전공>에서 볼 수 있듯이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 흥미를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연계전공을 택한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연계전공 이수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였기 때문”이었다. 중복답변이 가능했던 이 문항에서 122표 중 89표를 차지해 압도적인 답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 같은 관심에 비해 연계전공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 중인 연계전공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 이수중인 연계전공의 커리큘럼, 졸업요건, 연계된 학과, 졸업 후 진로 중 몇 개나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과반수가 넘는 68명의 학생들이 2개 이하만 알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이수 중인 전공에 대해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모두 알고 있는 학생은 15명에 그쳤다.

▲전공인 듯 전공 아닌 전공 같은 이들

연계전공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수 중인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배움터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88명의 학생 중 연계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있거나 이수할 계획이 없는 학생이 482명으로 73.48%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왜 연계전공을 이수하지 않거나 이수할 계획이 없냐고 문자 절반 이상인 250명의 학생들이 “연계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학생들이 연계전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된 것은 연계전공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계전공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 묻자 ‘강의계획서, 수강편람 등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얻는다는 답변이 복수응답 137표 중에서 가장 많은 73표를 얻었다. 하지만 수강편람에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이 나와 있고, 강의계획서에서는 말 그대로 강의계획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학생들이 속시원히 궁금증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계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들에게 어떤 점이 개선되길 바라는지 묻자 절반 이상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나 문의가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연계전공 학과 사무실이 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실제로 일부 연계전공은 문의처를 찾아봐도 학사종합지원센터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또한 양 배움터에 공통적으로 개설된 연계전공의 경우 학과 사무실이 모두 서울배움터에만 위치해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은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거나 설명을 듣기가 쉽지 않다.

▲‘융합학과 붐’ 우리학교에서도 가능할까?

한편 다음 학기 신설될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을 이수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전체 673명의 응답자 중 371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어문계열 등 문과 학생들이 중심인 우리학교에서 이공계 관련 연계전공에 47.1%에 달하는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공과대학과 자연대학이 있는 글로벌배움터에서도 현재 글

로벌IT 연계전공의 재적생 수가 단 두 명인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은 최근 인문계보다 이공계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IT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수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복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수할 의사가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179명의 학생이 “졸업 후 취업 가능성이 높아서”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는 81명의 학생들이 “평소에 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라고 응답해 ‘취업 가능성’의 뒤를 이었다.

▲연계전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

새로운 연계전공이 개설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기존의 연계전공을 택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학교에 새로운 ‘융합학과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여전히 많은 연계전공이 학생들의 관심 밖에 있고, 연계전공을 택한 학생들은 고민이 많다. 기록·문화유산관리학 연계전공을 이수 중인 송은교(통번역·스페인어 13) 양은 “비슷한 분야의 대학원으로 가려고 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전공이기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수업이 한정적이라서 고를 수 없는 점은 불편하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우리학교 고참 연계전공>

글로벌IT 연계전공(글로벌)

- 재적생(2014~2학기 기준) : 2명
- 개설 시기 : 2012년
- 특징 : 정보기술과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융합형 IT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연계전공이다. 우리학교의 여러 정보산업 관련학과들이 연계해 개설됐다. 강좌는 전부 영어로 진행되며 공과대학 이외 소속 학생만 이수할 수 있다.
- 커리큘럼 :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공업수학1,2 △공통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통신 △디지털공학 △디지털신호처리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습 △선형대수론 △컴퓨터개론 및 실습 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계전공(서울)

- 재적생(2014~2학기 기준) : 77명
- 개설 시기 : 2012년
- 특징 :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와 교양대학이 협력해 개설한 연계전공이다.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만 가능하며 연계전공 중 유일하게 부전공이 가능하다. 졸업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4급 이상 수료증 취득이다.
- 커리큘럼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 실습 등

BRICs 연계전공

- 재적생(2014~2학기 기준) : 164명
- 개설 시기 : 2005년
- 특징 : BRICs 지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연계전공이다. 비상경제열 학생들은 상경트랙을 이수하고 비언어계열 학생들은 언어트랙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실사를 거쳐 자매대학에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 커리큘럼 : △BRICs 국제합성론 △BRICs 지역입문 △BRICs 비교정책론 △BRICs 상거래문화 △BRICs 금융시장과 금융증권법 등

EU 연계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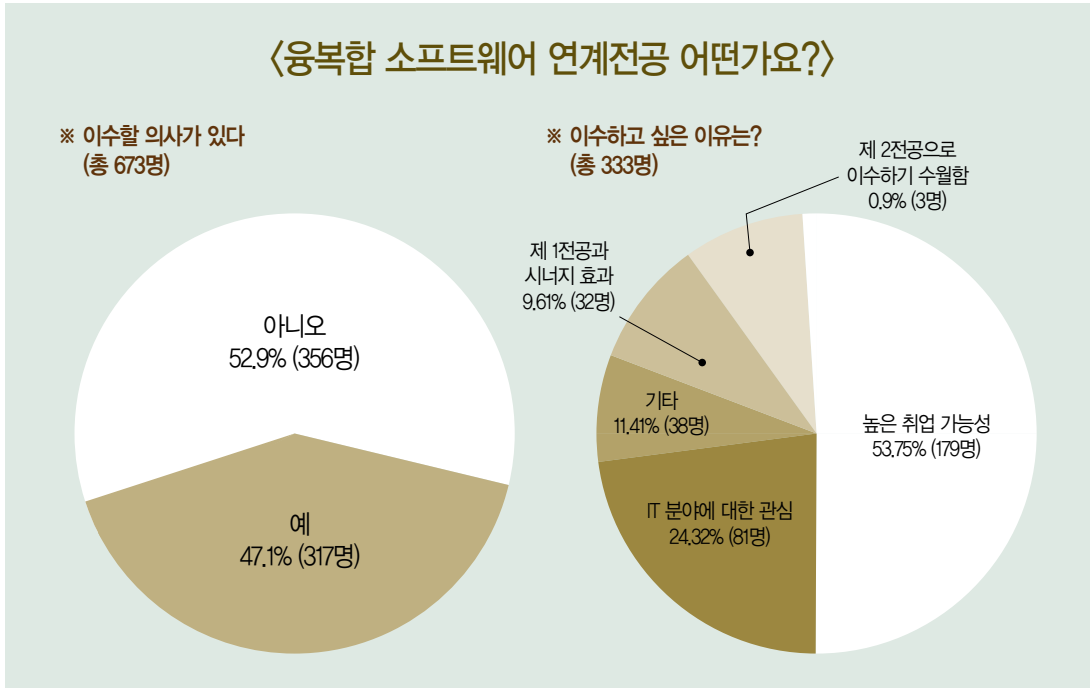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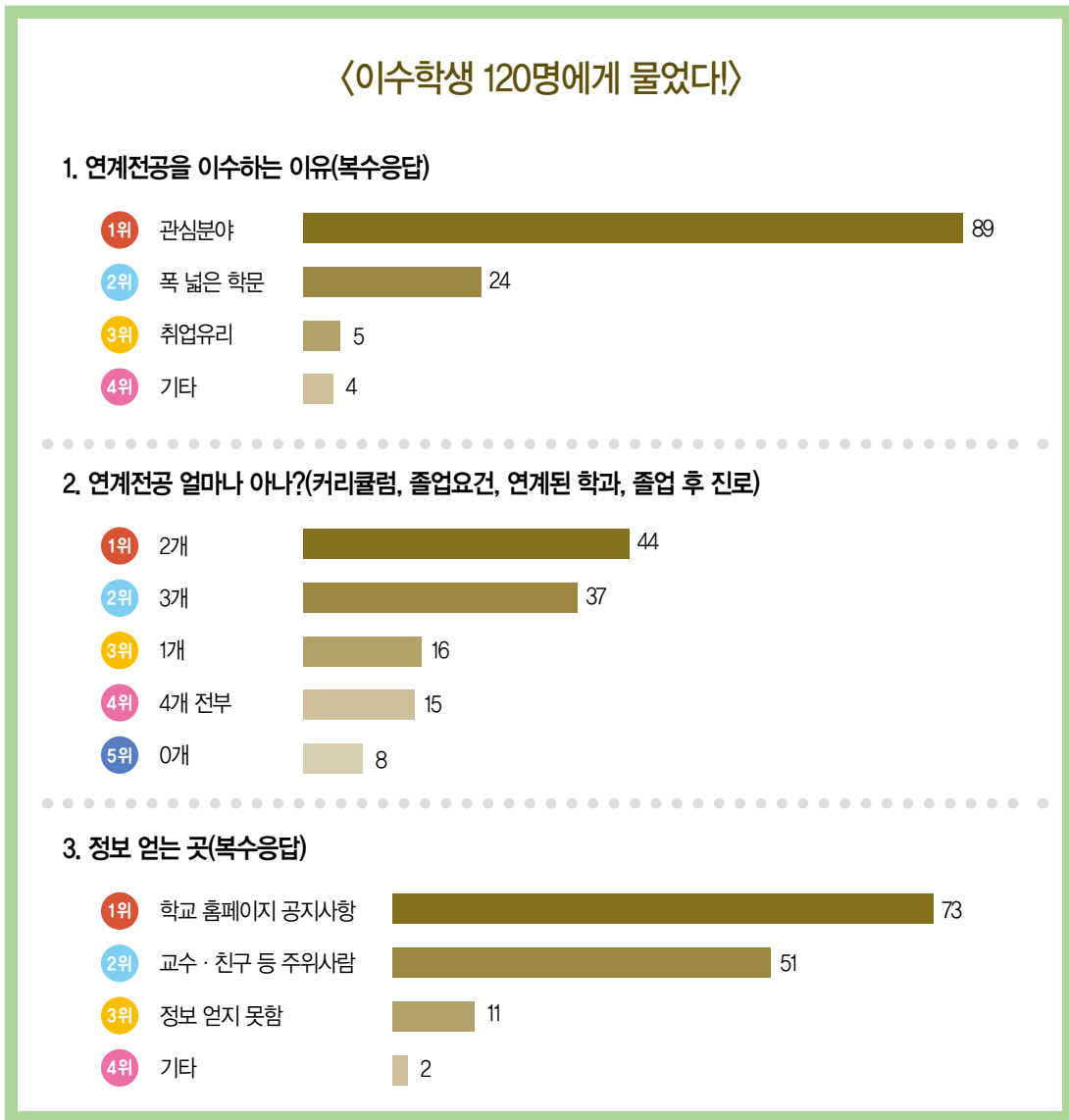
- 재적생(2014~2학기 기준) : 188명
- 개설 시기 : 2007년
- 특징 : EU회원국 언어학과가 연계해 개설한 전공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와 지역에 관한 전공이다. 회원국 언어학 당 국가의 언어와 지역에 관한 전공이다. 회원국 언어학과 학생은 ‘세계·문화와 기초사회과학’, ‘EU지역학’과 함께 수강해야 하고, 기타학과 학생은 이 과정에 ‘EU공식언어’과정을 추가로 수강한다.
- 커리큘럼 : △유럽연합의 이해 △유럽연합의 제도와 기구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유로화의 세계경제 등

문화콘텐츠학 연계전공

- 재적생(2014~2학기 기준) : 371명
- 개설 시기 : 2004년
- 특징 : 철학과, 사학과 및 어문학계열 학과가 연계하여 개설한 전공이다. 문화콘텐츠 개발이 중요한 최근 시대에 맞게 문화콘텐츠 기획 플래너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커리큘럼 : △문화콘텐츠 이론과 분석영역 △창작 및 영상문화영역 △문화비평과 미디어문화 교육콘텐츠 개발영역 △문화정보 및 문화산업 영역 등

동북아 연계전공

- 재적생(2014~2학기 기준) : 95명
- 개설 시기 : 2004년
- 특징 : 서울배움터는 중국학부와 일본학부가, 글로벌배움터는 중국어통번역학과와 일본어통번역학과가 개설한 전공으로 동북아시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연계전공이다. 중국어 전공자는 일본어를, 일본어 전공자는 중국어를 기초필수로 수강해야 한다. 비지역언어전공자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20학점 이수해야 한다.
- 커리큘럼 : △동북아 각국 기업문화의 이해 △동북아 각국 사회의 이해 △동북아 각국정치·경제의 이해 △동북아 경제협력론 △동북아 사상교류론 △동북아 영토분쟁 사례연구 △동북아 외교안보론 △동북아시아의 국제교류 △한·중·일 생활문화 비교 등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김다정 기자

정의가 사라졌다



정의(定義). 의미를 명백히 해 개념의 내용을 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20대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대학에 입학해 영어점수와 어학연수, 자격증은 필수인 세대? 취직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세대? 학창시절 지겹게도 들었던 “대학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과거 20대와 비교해 지금 20대는 확실히 힘들다.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었을 뿐인데 미래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 부담, 취업을 위한 스펙까지, 고민거리들만 늘었다. 전 세대를 아울러 지금 이 시기를 제일 즐기고 자유를 만끽해야 할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하루하루가 불안할 뿐이다.

사회의 모든 이들도 20대를 욕하고 있다. 사회의 주요 세대로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야 할 20대는 의식도, 소명도, 사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미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도 이런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총학생회 선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일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글로벌배움터 선거 정견토론회를 참여하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토론회 전 날 학내 언론사들이 모여 후보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필자 또한 외대학보의 대표로서 참석했다. 학보를 대표해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는 공식적인 자리기에 더 열심히 준비했다. 정견토론회 당일 후보들도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온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날 참석한 학생들은 선관위와 선본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이런 준비들이 무색 할 만큼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무작정 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필자조차도 외대학보로서의 참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토론회에 참석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선거무산도 그러하다. 조금도 손해 보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아우성고 학교 측에서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그 누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주려 할까.

학보사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됐다. 1년 동안 필자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고 무지하던 학내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눈을 떴다. 하지만 필자는 곧 무한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4학년이 된다. 10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갓 자유를 얻은 20대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세상이지만 필자는 20대를 정의(定義)할 무언가를 찾기 위해 계속 땀 것을 선택했다.

어깨너머 듣는 교양

김세리(미네르바 교양대학·만화의 이해 강의)

만화에 대한 오해와 이해

만화는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익숙한 만화는 전 세대에 걸쳐 사랑을 받아 온 보기 드문 매체가 아닌가 싶다.

헌데 혹자는 ‘누구나 좋아하고 읽어본 적 있을 법한 대중 매체인 만화를 굳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만화의 이해’ 강의는 바로 이러한 의문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장이다.

만화는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아주 독특한 매체다. 일찍이 18세기부터 인쇄술의 발달로 신문과 잡지의 배포가 활발해지자 당대의 시대상을 풍자하는 한 컷 만화나 연작판화 등이 등장했다. 그러나 아마도 만화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최초의 만화가 로돌프 퇴퍼 덕분일 것이다. 퇴퍼는 만화가이기 이전에 화가를 꿈꾸었으나 시력이 좋지 않아 곧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글 쓰는 데에 재능이 있었다. 그는 후일에 문학교수이자 예술 비평가로 활동할 정도로 문학과 미술에 조예가 깊었다. 화가가 되고자 했던 자신의 꿈과 글솜씨를 조화시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글과 그림의 결합체’로서의 최초의 장편 만화 ‘자보씨 이야기’(1833)를 탄생시켰다. 우리가 단지 어린이들의 소일거리로 간주하던 만화의 기원이, 문학가이자 예술 비평가의 숙고로부터 기인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뒤이어 프랑스 만화의 아버지 크리스토프, 독일의 빌헬름 부쉬와 미국의 리처드 아웃볼트 같은 작가들이 등장하며 만화는 보다 대중화됐고 예술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미국에서는 신문에 연재되던 만화들이 ‘코믹스(Comics)’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특유의 유머와 수퍼 히어로 중심의 영웅주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망가가 가세하며 만화시장의 주류에 편입됐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만화는 어렵사리 ‘제9의 예술’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근래에는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과 황홀한 그래픽이 조화를 이루는 경향을 반영하듯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이라 불린다. 아트 슈피겔만의 ‘쥐’가 만화로서는 최초로 풀리처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만화의 기능 또한 개인사로부터 역사나 문화에 대한 탐색, 현실고발이나 저널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그 형식 또한 다채로워지고 있다. 상업적인 차원에서도 만화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토록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만화’라는 매체를 단지 보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나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됐을 것이다.

일시
정지

사진은 추억을 남기고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구본관 107호에서 사학과 창립 30주년 기념 당사 사진전이 열렸다. 지난 10일에 시작해 20일에 막을 내린 이 행사에는 사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들에게 액자 속 사진은 어느 유명한 사진작가의 작품보다도 값진 걸작이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지나호를 말하다

나준영(영어·영어 14)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귀 닫은 당신을 향한 ‘휘루참마속(揮淚斬馬謖)’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는 상식됐다. ‘실수는 잘못이 아니다’라는 세간의 구절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문제가 된다. 학보 발간 이전에 모이는 독자위원의 논의가 헛바퀴를 도는 것은 어쩌면 필연이다. 매번 제기되는 사항이 꾸준히 반복되는 학보의 일부 문제점을 바라보며 ‘휘루참마속(揮淚斬馬謖)’의 결심을 세웠다. 대의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마속(馬謖)의 목을 베는 제갈량의 심정으로 필단을 칼같이 휘두르고자 한다.

오라가 심각하다. 단순 오키나 탈자의 문제를 넘어 편집과 교정이 의문이다. 이중전공 신청과 관련된 1면 기사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경영학부가 경제학부로 잘못 표기됐다. 6면 중간 부분에 ‘1.1’은 대체 무엇인가. 편집부가 말아야 할 교열·교정은 실종된 것인지 묻고 싶다.

표제와 부제 설정에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 기사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 일정 정도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시도는 옳지만 그간 대다수 표제와 부제는 지나치게 애매하고 모호하다. 제목은 내용의 압축에서 비롯한 기발함 속에서 생명을 가진다. 독자들은 고승의 화두 속에서 염화미소 지음을 원치 않는다.

지나호의 주제와 내용이 다양화된 점은 분명히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시의성이 무척이나 부족하다. 학보 기자단의 고충과 어려움은 심분 이해하는 바이지만 언론의 신속성을 고려해볼 때 여러 기사들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외대실록’이 아닌 ‘외대 학보’라면 시의성의 제고가 절실하다.

독자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 총학생회 선거는 다수의 학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도 1면과 4면 머리 11면에서 잠깐 다뤄진다. ‘총장과의 대화’ 관련 기사 역시 아쉽다. 총장-학생 간 대담 내용을 녹취해 실었다면 상당수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학보를 찾았을 것이다.

인문관 입구에 위치하지 않고 쌓여있는 학보의 양이 매년 늘어가는 것을 보면 함께 아쉽다. 적폐(積弊)를 일소하는 대변혁(大變革)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나호를 말하다

주희진(인문·언어인지 12)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학보다운 외대학보를 기대하며

이번호는 지나호처럼 기사의 소재가 다양했다. 군열이 생긴 글로벌배움터의 백년관, 서울배움터의 대동제, 글로벌배움터의 요리대회,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현대예술전시회 등 양 배움터에 대한 소식들을 여러 방면에서 다뤄, 보다 많은 학교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심층 기사보다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아 아쉬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면의 군열이 생긴 글로벌배움터의 백년관에 대한 기사는 굉장히 유익했다. 또한 이 기사를 실은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백년관에 군열이 생긴 이유부터 군열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평소 학생들이 궁금해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백년관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기사에서는 백년관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간략하게 쓰여 있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다면 학생들이 안전 문제를 인식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3,4면에서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

았고, 크게 지적할 부분도 없었다. 하지만, 기사의 사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서울배움터 대동제에 대한 기사의 사진의 경우,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사람들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어두웠다. 여러 번 사진을 찍고, 그 중 기사와 함께 보기 적절한 사진을 선택하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5면의 하단에 공과대학의 행사를 실은 것처럼, 앞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

6면의 사범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사는 일의 순서를 날짜별, 시간별로 정리해주어서 사건의 내막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특히, 하단에 날짜와 함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부분은 학생들이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9면의 ‘사하공화국 야쿠트어로 알아보는 우리나라의 뿌리’ 기사와 12면의 유재원 교수님과 인터뷰 기사는 공통적으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기사들을 이번 호가 아닌 한글날 기획으로 실었다면 더 의미 있고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부장 고정칼럼

학생 사회, 위기 의식을 가져야

▲2014년 프로야구의 정규 리그가 끝난 후,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상위 4개 팀보다 더 주목받은 팀이 있었다. 바로 한화 이글스다. 한화 이글스의 팬들은 시즌이 끝나자마자 일명 '김성근 감독 모시기' 작전을 펼쳤다. 팬들은 인터넷 상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꼴찌를 탈출하기 위해 김성근 감독을 데려와 달라며 동영상 제작한데 이어 한화 본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이 같은 팬들의 성원보다 놀라운 것은 팬들의 메시지에 구단이 응답했다는 것이다. 기존 코치를 감독으로 임명하는 내부 승격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고 알려져온 한화 이글스는 바로 김성근 감독 영입에 뛰어들었다. 결국 팬들의 바람대로 김성근 감독은 한화 이글스의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게 됐다.

▲반면 롯데 자이언츠는 선수단 지원에 힘을 써야 하는 프런트가 CCTV로 선수들을 감시했다는 불법 사찰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구 팬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 어떤 선수를 어떤 타순에 기용할 것이냐, 어떤 작전을 펼칠 것이냐와 같은 감독의 고유 권한에까지 일일이 관여하려 했다는 것까지 드러났다. 감

독이나 선수단과 이야기하는 대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던 프런트에 결국 팬들은 정상적인 구단 운영을 해달라며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삭발까지 했다. 하지만 롯데 자이언츠의 프런트는 팬을 향해서도 귀를 열지 않았다. 팬들이 시위를 하는 동안 선수단을 불러 회유했다는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지면서 팬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다. 결국 대표 이사와 단장, 운영팀장은 집을 샀고 롯데 자이언츠는 팬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프로야구단의 실질적인 주인은 구단주 혹은 모기업이다. 대부분의 팀이 지금껏 구단주의 뜻에 따라, 혹은 프런트의 판단에 의해 차기 감독을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해, 한화 이글스가 팬들의 뜻에 따라 김성근 감독을 영입했듯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도 팬들의 반대에 부딪혀 새로운 감독을 모셔야 했다. 하지만 이렇게 팬들의 뜻이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먼저 팬들의 강력한 의사 표현이 따랐다. 만약 팬들 중 아무도 나서지 않았더라면 다음 시즌도 KIA 타이거즈는 선동렬 감독이, SK 와이번스는 이만

수 감독이 이끌고 있었을 것이고 한화 이글스 또한 원래 계획대로 감독으로 선임했을 것이다. 팬들이 삭발까지 하며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롯데 자이언츠도 문제의 책임이 있는 고위층들을 죄다 잘라내는 적극적인 쇄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이다. 팬이 움직여야 구단도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학교도, 학생회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의사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렵다. 서울배움터에서는 이번 학기 정기총회가 무산된 데 이어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고 이미 몇 개의 단과대학에서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도 못하고 끝내야 했다. 서울배움터에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것만 4년 째다. 결국 2012년 겨울부터 2015년 겨울까지, 학생들의 등록금이 결정되고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새내기 배움터를 떠날 때마다 총학생회는 없게 됐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총학생회가 공석이 되서는 안된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학생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위기 의식을 가질 때다.

사설

방관과 무관심에 대한 경계

어느덧 깊은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전에 닿아 있다. 10월, 무었에 빠져 있었는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했다. 거둘 것이 없는 가을은 허전하기 짝이 없다. 거뒀을일이 어찌 낱알뿐이겠는가. 지식을 쌓고 배우는 일은 정신의 창고에 더 많은 곡식을 채워넣는 일이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교내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돼 있었다.

대동제는 지난 10월 31일 이미 막을 내렸고, 총장과의 대화는 6일 글로벌배움터에서 진행됐다. 본지 학술대전도 입상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총장배 토론대회가 6일 막을 열고 우승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행사의 주인공은 교내 구성원이다. 행사의 개최 취지나 목적도 교내 구성원이 중심에 놓여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체험해 학생으로서 의미 있는 추억 쌓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최 측의 열의에 비하면 교내 구성원의 반응은 차갑을 뿐이다.

상업성이 더욱 짙어진 대동제는 인기 연예인의 공연을 제외한 시간에는 구성원의 열기가 미지근했으며,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곳곳에는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본지의 학술대전 또한 참가자가 적었으며, 총장 배 토론대회 또한 참가 신청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 지극한 무관심인가, 냉소주의인가 안타까울 뿐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 새마을 운동을 할 때냐고 말한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당연히 지양돼야 하고, 무조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물량주의적 사고방식도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참여가 건전한 지성인으로의 기초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기억한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따라야 했던 그 기억은 어려웠을 때를 상징한다. 개인의 의사와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 시대에 획일주의는 분명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적극적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냉소와 무관심은 더욱 지탄받아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탄탄한 학사제도 마련 필요해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서울배움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이 신설된다.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은 외국어라는 우리학교의 강점에 IT라는 또 하나의 차별성을 뒤 유난히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혹독한 취업시장에서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했던 학생이라면 더욱 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신설되는 연계전공만큼 기존의 연계전공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지 5면의 기사에서 나타나듯 연계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학과 사무실이 없어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나 체계화된 커리큘럼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 또한 졸업 요건은 54학점인데 매 학기 개설되는 강의가 적다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연계전공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편된 이중전공 제도도 마찬가지다. 물론 학과별로 기준이 다양해진 만큼 기존의 3지망 제도를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지망 전공밖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이중전공을 이수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부전공으로 이수하다가 이중전공으로 바꾸면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망하는 학과는 이중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인원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원하는 이중전공을 이수한 뒤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학사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다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사제도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학사제도를 개편할 때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불만이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금 더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학사제도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방향 키 중 하나다. 탄탄한 학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임수진 010-4257-9732, 87curious@hufs.ac.kr

외대학보

창 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임수진

부 장 최소영

제 작 정보미디어 | 인 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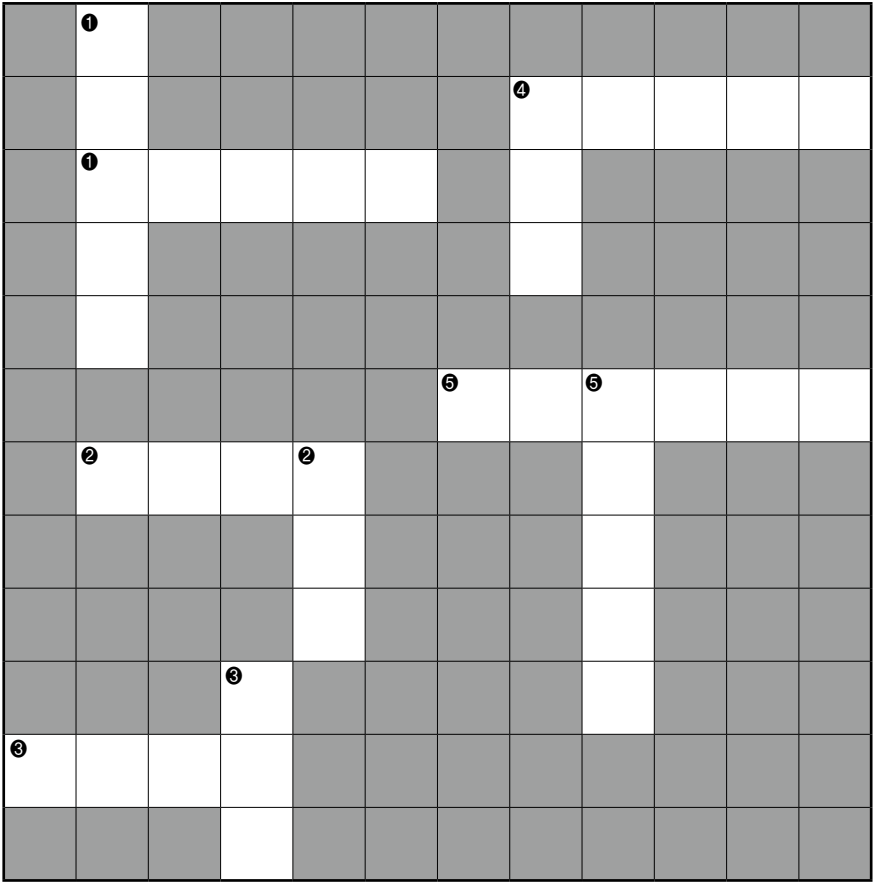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www.oedahagbo.com

facebook /newhufspress



십자말풀이



가로

- 서울배움터 사이버관에서 유병재의 00000가 개최된다. (2면 참조)
- 공산주의의 흔적이 남아있는 불가리아의 옆나라는 0000이다. (4면 참조)
- 본지에서는 다양한 0000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5면 참조)
- 루마니아의 수도는 00000이다. (4면 참조)
- 한상민 씨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ABA라는 00000분야에 뛰어들었다 (8면 참조)

세로

-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선거를 위해 00000가 열렸다 (2면 참조)
- 미네르바 여신은 그리스 신화의 000에 해당하는 지혜와 기술을 주관하는 신이다. (1면 참조)
- 글로벌배움터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제8회 000 학술제가 열렸다.(3면 참조)
- 000는 로마 신화 중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신조(神鳥)로 묘사되는 지혜의 상징이다. (1면 참조)
- 한상민 씨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미국공인 00000 자격증' 소지자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계정 친구추가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해 당첨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한국판 로렌조 오일

한상민 (영어 · 영어 89)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직접特效약을 개발한 부부의 실화를 기반으로 한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다. 우리학교 영어과 89학번 한상민 행동분석가는 아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원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응용행동분석(ABA, Applied Behavior Analysis)이라는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에 자격증 소지자가 18명 밖에 없는 미국공인행동분석가 자격 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ABA연구소를 열어 자폐 아동들의 치료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Q. ‘행동분석가’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직업이다. 행동분석가란 어떤 직업인가?

‘행동분석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ABA’를 알아야 한다. ‘ABA’란 ‘Applied Behavior Analysis’의 줄임말로 번역하자면 ‘응용행동분석’이다. 이는 심리학의 분과 중 행동주의에 속하는데 행동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로 ‘스키너’가 있다. 그는 쥐나 비둘기를 우리에 가두고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 나오게 하는 훈련 실험으로 유명하다. 이 실험에 따르면 동물들은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일부러 버튼을 누르게 된다. 이처럼 동물의 행동을 분석해 학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보는 것이 ‘행동분석학’의 시작이다.

응용행동분석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문제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로 특화됐다. 그래서 정신·지적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쓰여왔다. 20세기 말에는 전문적 자격도 생겼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보니 ABA에 관련된 윤리적 조항도 만들어졌다. 관련 협회도 설립돼 자격증을 부여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됐다. ABA는 조직행동론 같은 분야까지 적용되기는 하지만, 아들의 자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한 공부기 때문에 자폐 치료를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ABA 관련 협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인 ‘미국공인행동분석가’ 중 학사 수준에 해당하는 BCABA(Board Certified Assistant Behavior Analyst)를 취득해 본격적으로 행동분석가로 불리게 됐다.

“ABA는 배움이 끝이 없는 매력적인 학문”

Q.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미국공인행동분석가 자격증’ 소지자다. 어떤 자격증인지, 이 자격증이 어떤 의미인가

미국공인행동분석가 자격증은 행동분석에 관련한 지식을 인정받으면 미국의 ABA 관련 협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박사(BCBA/D), 석사(BCBA), 학사(BCABA) 3가지의 레벨로 나뉘고, 현재 한국에 총 18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ABA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 뿐 아니라,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임상 교육을 거쳐야 한다. 또한 시험은 영어로 치러야 하고, 시험 응시자의 90% 이상이 미국인이다. 합격률은 평균적으로 50% 안팎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호랑이를 그릴 생각으로 도전한다면 못해도 고양이네 그려지겠지’라는 심정으로 공부했다. 목표가 있으니 심도 있게 공부가 됐고, 내 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함께 돕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학사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지금도 석사급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내게 자격증은 자격증 그 자체보다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Q.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응용행동분석’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했다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것 같다.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려움은 없었나

아들이 자폐증을 진단받고 난 뒤 알아보니 우리나라에는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서 힘들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더러 자폐증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인터넷으로 관련 문헌을

찾아봤더니 95%는 영어로 쓰여 있었고, 대부분 자폐증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나온 문헌들이었다. 서적들을 읽으며 ABA가 자폐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에 대해 더욱 더 깊이있게 공부하고 싶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됐다.

사실 다른 대학교의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ABA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 대구사이버대학교에 편입했다. 학사 수준의 공인행동분석가 자격증이라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임상 교육을 1000시간이나 받아야 했다. 하루에 6시간 관련 근무를 한다고 생각해봐도 9개월 이상 해야 시간을 채울 수 있어서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실 지금은 그나마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ABA가 정착되는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새로운 분야다보니 이를 개척하는 것이 당연히 힘들었다. 국내에는 자료가 많지 않아 혼자서 외국 서적을 번역해가며 이론, 치료 전략 등을 살펴봐야 했다. 행동분석가들이 모여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지나 외국의 관련 협회 등을 찾아 가입했고, 그래도 혼자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다.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같이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아들이 인도해 준 자폐 연구의 길”

Q. ABA가 자폐증을 치료하는 데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자폐증을 앓는 아동이 일반 아동과 가장 다른 점은 사회성의 결여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상처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담 치료처럼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증의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한 치료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폐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ABA다.

어떤 행동을 분석해보면 그 행동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 반드시 있다. 이 요인은 보통 주위 환경에 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환경을 바꿔야 하는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굳이 언어가 필요없다. ABA는 그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떠올려보자. 카메라로 문제가 되는 아이의 행동을 살펴보고 원인을 찾는데, 이 원인은 보통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나 교우관계, 가족과 같은 주위 환경이다. 잘못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을 바꿔가면 아이도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이러한 치료를 가능하도록 행동을 분석하는 ABA기에 자폐증 치료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다.

또 현재 쓰이고 있는 자폐치료법의 대부분은 자폐증을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자폐라는 영역에 끼워맞춘 것에 가깝다. 하지만 ABA는 자폐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로 미국에서 ABA를 통해 자폐증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문헌적인 결과도 많이 남아있다. ABA 정도로 연구 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고 신뢰가 가는 치료법은 많지 않다.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도 유명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정도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Q. 현재 ABA 연구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까지 세우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연구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앞서 언급했듯 내 아들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돕고 싶었고, 무엇보다 ABA라는 분야를 알리고 싶기도 했다. 연구소는 주로 자폐증을 앓는 소아, 유아 등 어린 아이들의 치료를 맡고 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연구소로 오면 결손행동, 즉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학습을 주로 한다. 결손행동 정도에 따라 기능이 많이 낮으면 자리에 앉는 법, 눈을 맞추는 법부터 시작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방법 등 단계를 거치며 치료한다. 부모님이 아이의 행동을 관찰, 기록한 행동을 평가하거나 아이의 행동을 찍어온 비디오를 보며 치료 방법을 찾아보기도 한다. ABA 관련 연구는 물론, 번역이나 강의도 한다. 최근엔 관련 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감수하기도 했다.

Q.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다면?

미국공인행동분석 자격증을 석사 수준까지 취득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학사 수준의 자격증으로도 연구소를 운영하며 ABA에 관한 일을 하는데 무리는 없다. 하지만 석사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한국에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수도권에만 몰려 있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가르칠만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석사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해 ABA 분야의 인력을 더욱 양성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나 치료사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과 ABA에 관련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도 계속 해나갈 것이다.

또 우리나라 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문제가 있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 개념을 알리고 싶다. ‘긍정적 행동지원’이란 예방 차원의 행동 수정 방법이다. 공부하기 싫어서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혼을 내서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 울지 않도록 환경과 기반을 미리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쓸 경우 문제가 있는 행동을 단순히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

인이 있고 고칠 수 있는 행동으로 바라보게 된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왔는데, 이 개념을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가르치게 되면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상민 행동분석가가 최근 감수한 ABA 관련 도서

글 유다송 기자
89baquibullae@hufs.ac.kr
사진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